

# 2004년 경제전망

한국개발연구원

## 현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활동에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내수부진에 따라 서비스업의 생산부진이 지속되면서 고용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 발생한 가계소비의 위축은 상당 부분 작년까지 지속되어온 소비급증세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3년에는 실질국민소득(GNI)이 정체한 상태에서 가계신용이 조정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나, 가계신용의 조정은 향후 보다 견실한 거시경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금년에 가계신용의 조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이와 같은 소비위축 요인이 점차 완화되면서 소비지출이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수출과 내수의 괴리 확대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급증시키고 있으며, 지속되어 온 내수위

축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경상수지 흑자(=국내생산-국내수요)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서 (수출수요 급증에 따라)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수요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물가의 경우 전·월세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뚜렷하게 안정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그 동안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온 아파트가격이 10.29 대책 이후 안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재원이 건설투자에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10.29 대책 이후의 부동산가격 안정은 향후 건설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시에 금년과 같이 국내 투자재원이 건설투자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회복 조짐이 상당 부분 대외여건의 호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견실한 성장지속을 위해 필요한 우리 내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

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취업자와 잠재적인 취업자간에 존재하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총선 등 정치일정과 관계없이 이익집단의 요구에 대한 일관된 대응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부정부패 척결 및 조세제도의 형평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인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고용상황의 개선을 위해 내수도 수출과 균형있게 회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경기대책의 필요성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여전히 내수가 침체되어 있고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경기회복을 위하여 그 동안 취해져왔던 거시경제정책기조를 아직 가시적으로 변화시켜야할 상황이 도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수출에만 의존하는 경기회복은 고용시장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게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3~2004년 국내경제전망

### 대내외여건에 대한 주요전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고, 중국 등 개도국 경제도 2004년에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04년에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2004년에는 미국 4%대 초반, EU 2% 내외, 일본 1%대 후반, 중국 7%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또 원유도입단가는 2004년에 연평균으로 배럴당 25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반도체 가격은 현재의 수준(256MB DDR 기준 4.5달러 내외)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03년 평균에 비해 2004년에 연평균 3~5% 내외 상승할 것이다.

### 국내경제전망

경제성장률은 수출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민간소비도 완만히 회복되면서 2004년에 5%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상·하반기 모두 5%대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소득이 증가하고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완화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4년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하는 4%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2003년의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반등, 수출 증가 및 가동률 상승 등에 따라 2004년에 9~10% 수준의 증가율로 상승할 것이다. 또 건설투자는 2003년의 급등세에 대한 기술적 반락과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2% 내외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실업률은 2004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의 여파에 따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내수부문이 회복되면서 점차 하락하여 연평균으로는 2003년과 비슷한 3.4% 내외의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2004년에 내수회복과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의 적자폭

〈표 1〉 2003~2004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 달러)

	2003				2004		
	상반 <sup>P</sup>	3/4 <sup>P</sup>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총생산	2.8	2.3	3.1	2.7	5.3	5.3	5.3
총소비	-0.1	-1.4	-0.7	-0.6	3.2	5.0	4.2
민간소비	-0.7	-1.9	-1.2	-1.1	3.4	5.6	4.5
총고정투자	4.1	2.3	2.1	3.1	3.3	7.4	5.4
설비투자	0.4	-4.7	-1.4	-1.3	4.9	15.2	9.8
건설투자	7.6	7.8	4.4	6.7	1.9	2.3	2.1
총수출(물량)	13.6	15.2	16.7	14.8	14.3	9.6	11.8
상품수출	15.7	16.8	18.4	16.7	15.1	9.8	12.3
총수입(물량)	12.6	9.1	15.6	12.5	14.9	15.5	15.2
상품수입	13.7	8.9	14.4	12.7	14.8	16.4	15.6
경상수지	8	41	63	112	44	29	74
상품수지	69	71	85	225	129	100	229
수출(금액)	910	491	566	1967	1090	1172	2262
(증가율)	(18.8)	(19.9)	(25.7)	(21.0)	(19.8)	(10.8)	(15.0)
수입(금액)	841	420	481	1742	961	1072	2033
(증가율)	(21.6)	(10.3)	(16.9)	(17.4)	(14.3)	(19.0)	(16.7)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61	-30	-22	-113	-85	-70	-155
소비자물가	3.7	3.2	3.6	3.5	2.8	2.9	2.8
(근원물가)	(3.2)	(2.7)	(3.0)	(3.0)	(2.5)	(2.8)	(2.6)
실업률	3.4	3.3	3.5	3.4	3.7	3.2	3.4
(계절조정)	(3.3)	(3.5)	(3.7)		(3.5)	(3.4)	

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3년의 110~120억 달러에 비해 다소 축소된 70~8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수출(달러금액)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15%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전망이다. 수입(달러금액)은 내수회복 및 원화가치 상승에 따라 더욱 높은 16~17%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4년에 2.8%를 기록

하여 2003년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2003년에 비해 낮아진 2.6%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망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지속, 가계신용의 조정압력 완화, 총선 등 정치일정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의 제한적 확대 등의 전제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들이 주요 불확실성 요인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정책방향

### 재정정책

2004년 예산(안)은 다소 긴축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2004년의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할 때 기조를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예·결산 사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기조를 크게 변화시켜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4년에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조세구조를 합리화하는 한편 성장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계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정책은 단기적인 경기안정화라는 측면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투자유인 및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10.29 대책에서 천명된 방향으로의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하다.

### 통화 및 외환정책

금리정책은 당분간 현 수준 정도의 저금리정책을 유지하여 경기회복을 지원하되,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점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증가속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볼 필요하다.

최근의 외환보유고 급증은 원화의 실효가치 하락을 유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수출과 내수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년에만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GDP의

6% 내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반기에만 200억 달러 내외의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외환보유고의 확충은 내수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의 속도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금융정책

부실카드사는 정책 및 감독당국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된 가운데 채권자 주도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회사 부실의 일차적 원인은 금융시장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시장규율의 미흡이며 감독규율의 미비는 부차적 원인. 따라서 부실카드사의 처리는 이와 같은 시장규율 왜곡을 치유하는 방향과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부분적인 시장불안을 감수하더라도 정책당국의 개입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

투신전환증권사는 예정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위험관리 제고는 근본적인 위험관리 행태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위험 평가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①개인신용정보 인프라를 개선하고, ②부동산 등 특정자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위험관리 행태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 지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노동시장정책

2004년에는 고용창출을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노사관계개혁을 포함한 제반 노동정책의 초점을 여기에 집중할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혁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뿐 아니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㉞